

남북교류사업 성과와 전망

여성단체가 남북교류 물꼬 텄다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여름이면 5명중 1명이 해외로 여행을 다닌다는 남한과 여전히 먹을거리를 고민하고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수백 명의 생명을 잃는 북. 서로의 생활환경은 남이지만, 절대 남이 될 수 없는 사이인 남과 북, 그 둘 사이 민간여성단체들이 추진해온 소통의 방식이 있다. 최근 아쉽게도 정상회담이 연기 되었지만 여름 수해로 많은 사망자가 났다는 북한의 소식에 여성단체들이 다시 북한 수해모금을 시작했다. 뜨거운 8월이면 생각나는 남과 북의 교류를 들여다 봤다.

교류 의미를 확장하다
여러 포대의 쌀들이 큰 배에 실리고 손을 흔드는 사람들. 아마도 '남과 북의 교류' 하면 이런 화면이 생기는 사람



들이 많을 것이다. 교류의 사전적 의미는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섞이여 문화와 사상 따위가 통합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과 북처럼 경제적 차이가 큰 집단 간 이루어지는 교류는 동등할 보다는 상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원조의 성격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50년이 넘는 분단의 시기를 거치면서 다른 삶의 양식을 갖게된 두 나라의 교류에 있어서는 상호 균등하게 소통되는 평등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시말하자면 나로부터 우리사회 내부에 대한 성찰적 비판이 필요하다는 뜻이자 교류 사업이 단순히 정파적 이해구현의 수단으로 전락 되지 않기 위해 평화비용·통일비용이라는 관점에서 교류의 의미를 정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북 교류, 여성이 먼저 시작하다
여성들의 남북교류는 노태우 정부시절 북방정책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남북 단일 축구팀이나 통일음악제 등 스포츠와 음악



을 통해 남북한의 화해와 단합을 돈독히 하는 민간교류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는 1991년 교회여성단체들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중심이 된 남북여성모임이다.
이 모임은 분단이후 최초 실질적인 여성교류로 평가받고 있다.
여성교류는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작업을 해냈지만, 전체 성사건수 중 경제교류 비중이 절반에 이르는 당시 상황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여성 교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은 꾸준히 남북여성교류의 형태로 나타났고 전북지역에서도 북한산모 및 아동 돕기 모금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2004년 통전역 사고로 인해 전국여성단체연합이 통전통기 여성행동을 조직하여 범국민 캠페인과 학교기자재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고 지역에서도 함께 모금활동을 진행했으며 통일교육과 토론회, 통일인형극, 산모 내보내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여성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분부를 결성하면서 점차 정례화 되었다.
2001년부터 남북 민간사이에 교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번갈아 가며 6·15와 8·15 민족공동행사를 치렀고, 이후 남북여성통일대회는 2002년 10월, 남북 여성이 주체적으로 만난 최초의 행사라는 의미와 함께 현재까지 각 부문별, 사안별 여성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여성들이 꿈꾸는 통일, 긍정의 에너지로 소통하자
남북의 여성교류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폭력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통일은 과정이다. 무엇이 통일이고 언제쯤 통일이 가능한 것인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남북여성교류를 추진해온 여성단체들은 통일을 이뤄가는 과정속에서 여성의 위치와 입장이 포용되는 남북한의 교류는 실질적 통합을 이뤄내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남북의 여성교류가 더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노현정 NGO객원기자(전북여성 사무처장)

편집:김동일기자

NGO 사람과 희망

“분단 체험으로 통일의식 높이지요”

통일교육 18년째 홍인재 춘포초 교사

“누구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하지만 통일을 위한 실천과 방법에 대해선 대부분 어려워 하지요. 민족의 장래와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가장 시급한 과제가 통일교육이 아닐까요.”
익산 춘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홍인재 교사(41)는 교사의 꿈을 키우던 대학 시절부터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통일 교육을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1990년 전주 초포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해 통일 교육을 시작한 지 올해로 18년째. 2006년에는 통일교육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굶주려서 제대로 활동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북한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나중에 통일이 됐을때 우리에게 뭘 했냐고 물어보면 달리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성금 모아 보내기를 생각했지요.”
홍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모은 성금은 북한에 콩우유를 만드는 기계를 보내고 공과 재료를 보내는 데 쓰여진다.
“아이들의 생각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북한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 정말로 웃음이 지어져요. 모아진 성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지요.”
홍교사는 아이들에게 가끔 분단체험을 하게 한다. 방식도 흥미롭다. 교실을 반절로 나누어 선을 그어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말도 나누지 못하게 하고, 밥도 같이 못먹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재미있어 하지만 금방 불편을 느끼게 되어 경계선을 없애자고 한다. 물건을 같이 쓰자거나 서로 좀 더 친해지자고 협상도 하게되고...
이런 분단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은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고 홍교사는 전했다.
“함께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해 보자는 후배 선생님들의 제안을 받은면 더욱 신이 납니다.”
올해는 ‘전북 청소년 교육문화원’의 초등교육연구국장을 맡게 돼 더욱 바빠졌다. 그는 앞으로는 다양한 통일 교육의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물론 그 계획들은 모두 실천으로 옮겨질 것들이다. 항상 통일교육을 고민하는 홍교사의 의지가 머지않아 소중한 결실로 이어질 것 같다.
/이창형 NGO객원기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시민감시국장)



제18회 전북 직장대항 테니스대회

● 대회일시 : 2007년 9월 1일(토) ~ 2일(일) 2일간

● 대회장소 : 전북대 테니스코트

문의전화 <

●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 252-9112, 016-651-9112 FAX:252-9091

● 전북일보사 기획사업부 ☎ 250-5653~6 FAX:250-5640

주최 : 전북일보사

주관 :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후원 : 울산대학교